

소통·공유·협력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의 목적

백선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시한 경영목표 중의 하나가 “소통·공유·협력의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육아정책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들의 팀워크는 말할 것도 없고, 다양한 외부 구성원-육아정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공유,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책을 발굴, 수립, 집행, 평가, 피드백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모두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정책에 대해 학부모, 전문가, 원장, 교사, 공무원 각자의 생각이 다르며, 동일 집단 내에서도 처한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다르다. 서로의 이해와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의 차이,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조율해 나가느냐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은 타인과 소통, 공유, 협력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 해법을 수많은 종(種)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생태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자연생태계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개 분투(Struggle)보다는 적절한 협력 관계나 협동을 취한다고 한다. 자연생태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역시, 인간의 소망이 투영된 것이란 비판도 있지만, “공생” “상생”은 바로 이러한 협동을 말하며 건강한 생태계는 모든 참여자(種)가 이익을 얻는 관계이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고, 사적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고 때로는 첨예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종합

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육아정책연구소의 역할은 막중하다. 게다가 초저출산 장기화되면서 육아정책은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게 계속해서 추진될 계획이라 연구소의 역할과 위상도 점점 중요해지고 높아질 것이다.

자연생태계로부터 얻는 교훈을 “소통·공유·협력의 육아정책 연구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실천하고자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생” “상생”할 수 있도록 즉, 육아정책을 통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